



‘온전함을 사모하는’ 글로벌 특별새벽부흥예배

SaGa와 함께하는 제19차 봄 특별새벽부흥예배

그리스도가
왕이 되게 하라
Let Christ Be King

뉴스레터 News Letter 247호 주후 2021년 4월 16일(금)

주후 2020년 ‘가을’ 글로벌 특새를 ‘시작’하게 하시고,
주후 2021년 ‘봄’ 글로벌 특새를 ‘자리’잡게 하신 주님,
주후 2021년 ‘가을’ 글로벌 특새에 ‘폭발적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이 상식이 되는 사명자의 인생

주여, 가슴에 손을 얹고 결사적인 기도를 올려드리는 주의 자녀들의 목인 모든 죄사슬을 풀어 주옵소서.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하나님안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 의식으로 전력투구하며 특새세대, 텔레이오스 세대가 되어 모든 것을 초월하는, 관통하는 온전한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글로벌 특새 이후에,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완전히 모든 것들이 온전히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의 재림을 앞당기며, 준비하는 세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기적이 상식이 되는 평생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도가 새날이 열릴 수 있는 은혜의 마중물이 되게 하옵소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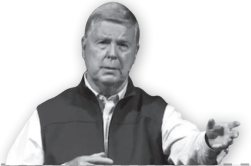
부흥의 초석이, 디딤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기도할 때 위로부터의 응답이 임해 세대는 다르지만, 역사는 동일하게 하여 주옵소서.

-4월 15일 오정현 담임목사님의 기도 인도 중에서-

TODAY'S PRAYER

목자의 심정으로 시대적 사명을 감당케 하옵소서

- 1/ 영가족 모두를 성령의 전신 갑주로 무장시켜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대 감사와 절대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크신 은혜와 신적개입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 2/ SaGa와 글로벌참여교회들이 불확실성의 시대에 복음의 선명성과 선교의 긴급성으로 무장되게 하시고, 4차혁명시대를 돌파하는 글로벌교육플랫폼으로 쓰임 받게 하옵소서.
- 3/ 눈에 보이지 않는 코로나바이러스와의 싸움에서 답답하고 막막한 상황 가운데서 구름 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불 성곽으로 보호하시는 현재적 임재와 승리의 기적을 누리게 하옵소서.
- 4/ 세워주신 강사님(오스 기니스 교수, 조명환 장로)과 담임목사님에게 위로부터 성령님의 강력하신 은혜를 덧입혀주사, 온 성도에게 새 몸과 새 마음과 새 능력의 은혜가 넘쳐흐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할 때 (행 12:5~7)

짐 심발라 목사

설교요약



초대교회는 늘 기도하고 사역하는 교회였습니다. 감옥에 갇힌 베드로는 자신의 안위보다 교회를 위해 옥중에서도 기도했습니다. 동시에 초대교회는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사자를 보내셔서 그의 옆구리를 쳐서 깨워 감옥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한국도 100여 년 전, 평양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경험했습니다. 당시 한국의 긴급한 요청과 고통을 아시고 즉각적인 성령의 응답을 하셨습니다. 결사적인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작은 것이 아닌 큰 것, 위대한 것을 달라고 구하십시오. 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하심과 축복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김예랑 성도

진짜 기적은 무엇일까요 (살전 5:15~18)

저는 결혼을 하고 아이 셋을 출산하면서 8년간 육아에 집중했습니다. 그런데 셋째 아이 여원이가 뇌전증으로 쓰러졌습니다. 뇌전증은 발작, 환각 증세를 동반하다가 장애를 남기고 사망까지 이르는 병입니다. 저는 그 즉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했지만, 여원의 증상은 날로 심각해졌습니다. 오른쪽 다리가 마비되고, 이 땅에서 이별까지도 준비해야 될 상황이 찾아왔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원이가 6살 때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원이가 병상에 있는 동안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좋은 하나님, 참 좋은 나의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것이 진짜 기적이었습니다. 기도를 놓치지 않고 늘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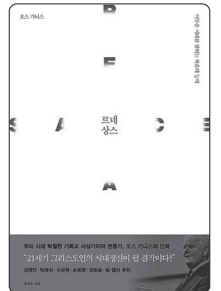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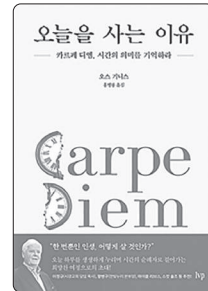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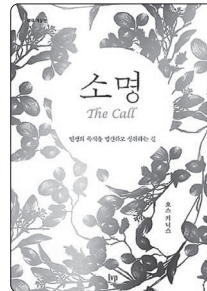
SaGA와 함께하는 감사 소개



오스 기니스(Os Guinness) 교수는 신학자, 기독교 철학자, 변증가로 왕성히 활동하고 있는 기독교 지성인입니다. 중국 의료 선교사의 아들로 태어나 어린 시절을 중국에서 보낸 중 추방 당하여, 영국과 미국에서 학문 활동을 이어간 인생의 여정은 폭 넓은 지식사적 소양을 바탕으로 기독교적 주제들을 거대한 흐름 속에 얹어서 심도 있게 전개한다는 평을 받습니다.

프란시스 쉐퍼(Francis A. Schaeffer)의 사상을 계승한 이 시대 최고의 기독교 사상과 변증의 지성을 지닌 오스 기니스 교수는 21세기 영적 집현전 SaGA 예배아카데미 교수진으로 합류하여 '혼전한 한 사람을 세우는 사역', '온전한 창조적 소수의 사람들'을 세워 시대변화를 선도하는 사역에 함께 협력하고 있습니다.

대표적 저서



『소명』: 40여 년간의 연구를 바탕으로 우리 인생의 존재 이유와 소명에 대한 성경적이고 균형 잡힌 관점을 제시

『오늘을 사는 이유』: 오늘을 의미 있게 살아가게 해 줄 관점인, 시간을 구속하는 성경의 언약적 관점을 제시

『르네상스』: 서구 기독교의 과거를 분석하고 현재를 진단하여 다시 복음주의로 되살아 나야한다는 관점을 제시



이종구 안수집사
(SaGA 1기)

SaGA와 함께하는 특새



하용수 안수집사
(SaGA 1기)



내 삶의 무게중심을 변화시킨 SaGA와 특새

세 군데 일터에서 초, 분을 다투는 바쁨 속에서도 SaGA에 입학했습니다. 온전론 수업을 비롯한 기독교세계관, 일터선교 등 수업 내내 도전, 감사, 축복의 시간이었습니다. 저명한 교수진들의 섬세한 강의는 내 삶의 무게중심을 변화시키는데 충분했습니다. 이 기쁨 때문일까, 새벽 2시 50분 알람이 울리면 육체적으로 피곤하지만 SaGA와 함께하는 특새 자리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오늘도 특새에서 SaGA를 통해 복음주의 쇠퇴를 막고, 세계 선교 회복과 세상 변화를 이끄는 영성과 지성, 야성을 겸비한 크리스천 리더들이 바르게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내 삶을 되돌아보게 한 SaGA와 특새

이번 특새는 어느 때 보다 체력적으로 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이 순간, 오늘 간증은 나의 불평과 기도를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퇴직을 앞두고 인생의 후반기 준비를 위해 신청한 SaGA는 강의와 다락방, 주일학교 등 너무 힘들어 하는 내 자신에게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이 도전받는 마음으로 참석한 특새에서 오늘 간증은 '내가 가진 것이 많음을, 지금까지 지낸 온 것이 순전히 주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퇴직 후, 자비량 선교사로 복음의 빛을 갠 갈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내일의 특새를 기대해 봅니다.

글로벌 서신



탐스 버막스 목사
(라트비아 리에파야 교회)



1년이 넘게 더 큰 예배 건물을 주시길 기도하던 중 지난 2월, 꼭 맞는 위치에 규모와 공간을 갖춘 맞춤형 건물이 매물로 나왔습니다. 다만 엄청나게 높은 매물가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건물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금껏 돌보아주셨기에, 새로운 장소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저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이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산을 옮기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도 새 차원에 올라가게 해주시길 기도해주시요.

제자훈련의 국제화



조지 테이 목사와 유니스 테이 사모
(싱가포르 안드레교회)

저는 보험회사 임원으로 일하다 늦게 목회자의 길을 걸었고, 아내 유니스는 싱가포르에 싱가포르신장협회(Singapore National Kidney Foundation) CEO로 일하다가 은퇴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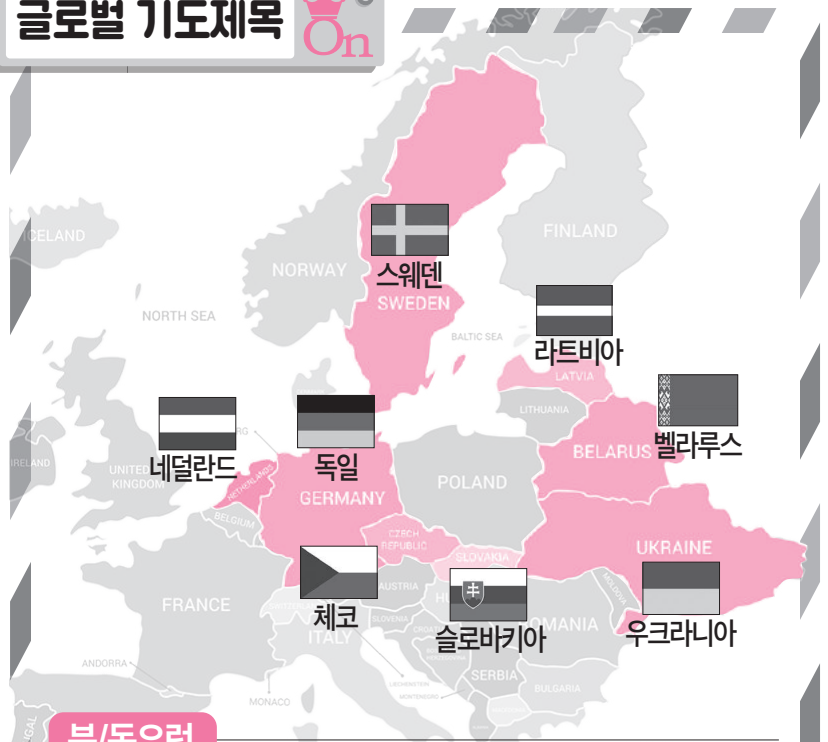
싱가포르 중심가에 위치한 안드레교회(St. Andrew City Church)에 담임 목회하던 중 특별한 계기로 사랑의교회 칼세미나에 참여하였습니다. 칼세미나에서 저는 싱가포르로 돌아가면 **제자삼는 목회철학을 평생 실천**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싱가포르 제자훈련은 9월부터 시작하여 **제자훈련 및 사역훈련 과정**으로 진행하였고, 이 훈련을 **범교단적으로 주변에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은퇴를 할 무렵 저는 말레이시아 쿠칭으로 이사하여 그 곳에 제자훈련을 10년 동안 정착시키는 사역을 하고 다시 싱가포르로 돌아와 '노인들을 위한 제자훈련교회'를 개척하여 제자훈련으로 삶을 마무리할 계획이었습니다. 비록 작년 COVID-19로 10년을 조금 못 채우고 다시 싱가포르로 돌아왔지만, 싱가포르 **노인들을 위한 제자훈련교회 창설**에 더욱 속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13년 동안 제자훈련을 목표로 교회 수련회 및 범교단적 회합에서 **제자훈련 강의 및 각 교회에 접목**시키는 연구들을 끊임없이 나눠 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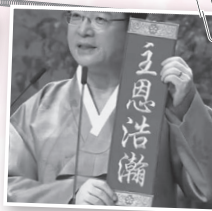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에 제자훈련교회가 온전히 세워지는 일에 함께 기도로 동참해주시길 바랍니다.

글로벌 기도제목



북/동유럽

1. 세속적 인본주의 물결과 정부의 동성에 법제화 시도 가운데 독일 교회를 지켜 주옵시고 영적 전쟁 가운데 **여호와 닛시의 깃발**을 높이 들게 하옵소서.
2. 북유럽과 동유럽 내 사랑의교회 파트너 교회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생명의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불신자들의 마음 문을 열어**주옵소서.
3. 코로나 가운데 환경의 제약을 넘는 **주님의 초월적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독일, 네덜란드, 스웨덴,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라트비아, 체코, 슬로바키아를 **복음으로 충만케 인도**하여 주옵소서.



알림



1. 기도주제

오늘의 기도 주제는 '목자의 심정으로 시대적 사명을 감당케 하옵소서'입니다.

2. 감사소개

*오늘: 오스 기니스 ('소명' 저자)

'21세기 교회에 주어진 기회와 당면과제' (엡 6:10-13)

조명환 (월드비전 회장)

'그가 이루시고' (시 37:5)

*내일: 폴 칠더스 (YWAM 하와이 열방대학 총장, Word By Heart 대표)

'가정에서 그리스도가 왕이 되게 하라' (출 20:6)

현승원 ((주) 디쉐어)

'네 마음이 어디있느냐' (마 6:19-21)

3. <기쁨의 잔치> 안내

내일(4/17, 토) 봄 특새 마지막 날에는 <기쁨의 잔치>가 있습니다. 성도님의 귀한 헌신으로 '왕관 떡'과 '꿀물'을 준비하였으니, 온 성도가 기쁨과 사랑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4. 버스 탑승 안내

내일 시작 시간은 오전 5시 25분입니다. 셔틀버스 탑승시간은 평소보다 30분 내외로 늦어질 예정입니다. 반드시 모든 선택자에게 확인 바랍니다. (모든 노선은 편도로 운행됩니다)

5. 주차안내

교회주차장, 마제스타시티 지하 67층: 월요일- 금요일 2시 30분 - 7시까지, 7시 출차(이후 유료), 더바인 웨딩 & GS파크 24: 토요일만 가능, 8시 30분 출차(이후 유료). 성숙한 주차문화는 영성입니다.

6. 은혜 게시판 활용

은혜게시판에 은혜롭고 감동적인 글을 작성해주신 성도님들을 선정하여 T(Teleios)세대 감성을 담은 '72주절 성경암송 테이프' 6파트 (A-F파트) 중 1개의 테이프를 드립니다.



받은 은혜 쏘지 말고, 게시판에 담아 두자

사진: 은혜의 폭포

<SaGA 한시(漢詩)>

使家念清宵(사가념청소)요

(사가: 사명의 집)

憶耶穌夜醒(억예수야성)이라

家貧思恩惠(가빈사은혜)요

國亂思神國(국란사신국)이라

<해 석>

SaGA(사명의 집)를 생각하는 맑은 밤
예수님 생각에 맑에도 깨어있네.
집이 가난하면 은혜를 생각하고
나라가 어지러우면 하나님 나라를 생각한다.

**본시는 두모와 사마천의 시를 패러디한 시입니다.

은혜 게시판



영숙정 / 기적은... 오늘을 살아가는 것.

저에게는 이것이 기적입니다. 저의 아이는 중증이라 제가 침대 옆을 지켜야했습니다. 병원에 있는 기도실은 단 한 번도 갈 수 없었고, 제 기도 자리는 늘 아이 옆이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눈뜨며 아이가 옆에 숨쉬며 누워있고, 밤에 아이를 안고 재울 수 있는 것, 우리가 그렇게 또 일상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못 견고 뛰지 못해도, 혼자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그렇게 내 아이는 오늘 하루가 기적임을 저에게 깨닫게 해주고 엄마로서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붙잡아주는 복의 통로입니다.

이상희 /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 주라!

특새 나흘째~ 오늘도 빈손 들고 나갔는데 어김없이 두 손에 가득 은혜 채워 보내시는 좋으신 하나님, 나의 아바 아버지~오늘 알았습니다. 특새 나오지 못하는 순원들에게 특새 뉴스레터라도 전해주고 싶은 마음 주신 이유들~ 새벽에 우유통에 뉴스레터 넣으며 문고리 잡고 축복기도 하게 하신 이유들~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 주라"던 바울의 부탁처럼, "순원들에게 아바 아버지의 사랑을 읽어 주라"고 저에게 부탁하고 계심을^^

윤성숙 / 작은 것이 아니라 위대한 것을 구하라

오늘도 여정히 새벽 2시50분에 안아주시는 본당임성~기도의 시간을 넉넉히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기적이 상식이 되는 은혜의 폭포수를 경험하게 하시는 너무나 좋으신 주님!!! 작은 것이 아니라 위대한 것을 구하라 하심에 너무 위로가 되었습니다. 매순간마다 위대한 것을 구하여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는 진자 기적을 체험하는 특새되게 하신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경화 / 특새세대 손에 특새 키링처럼 하나님 손에 특새세대가 되길 소망합니다.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임을 다시 한 번 고백하는 아침입니다. 태중에서 특새하던 아이가 어느덧 특새세대가 되어 특새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이의 작은 두 손에 꼭 잡은 특새 키링처럼 우리의 평생이 하나님 손에 꼭 붙들려 있길 소망해봅니다.

우리는 Teleios 세대입니다!



로동부 교사 김우재 & 학생들

넷째날을 기념하며 시작한 특새에 우리반 학생 박서연,황예빈,나고은,서충휘,윤+김** 참석했습니다. 이제 한명 남았네요^^ 저의 둘째 아이가 집중 회로실에 있을 때 주님 건강을 위한 자라게 해주셨어요 기도했는데, 그 때의 마음은 사라지고, 아이들을 향한 욕심이 자녀들을 힘들게 한 것 같습니다. 딸과 아들에게 향한 욕심을 사랑으로 바꾸어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우리반, 우리교회 아이들을 사랑해야 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아기의 손처럼,
예수님의 온전함을
붙잡기 소망합니다

다섯째날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도할 때 작은 것들이 아닌
위대한 것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출석표의 절취선을 오려 출석부에 붙여주십시오